안녕하십니까? 미한국상공회의소(KOCHAM) 사무국입니다.

아래 경제 기사와 보고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사 아래 파란색 버튼을 누르시면 기사 원문을 보실 수 있습니다)

[미국 경제]
- WSJ: '연준 금리 목표 4%가 침체 벗어날 수 있는 여지 가능'
- WSJ: 경제 데이터가 서로 다른 두 경제 계층을 설명한다

[미국 금융]
- Bloomberg: 트레이더들, 연준 금리 결정에 소비지출 지수에 대비
- Bloomberg: 올해 하반기에 빅 7보다 소재, 헬스케어 성장 커
- CNBC: WGC, "금 채굴이 갈수록 힘들어 지고 있다"

[물류]
- WSJ: 트럭 운송 일자리 줄어… 화물 수요 침체로

[주택]
- Bloomberg: 팬데믹 이후 미국 주택 소유 비용 26% 증가

[비즈니스와 기업동향]
- NYT: 쇼핑 센터 임대주, 20년 만에 소매 공간 수요 증가로 호황
- WSJ: 항공사들 '직접 판매' 위해 노력하지만 역효과 날 수 있다
- CNBC: MS, AI 개발 OpenAI에 아웃소싱 … 구글에 유리할 수도
- Bloomberg: 월마트, 미국 이커머스 사업에서 2년 내 수익 창출 기대

[보고서]
- 신한은행 아메리카: 일일 금융 시장정보

[미국 경제]

WSJ: Americans Really, Really Hate Inflation—and That's a Big Problem for the Fed
'연준 금리 목표 4%가 침체 벗어날 수 있는 여지 가능'

- 시간이 가면서 인플레가 더 높아지면 연준이 금리를 더 높게 정할 수 있다. 그러면 경제가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연준이 금리를 인하할 수 있는 여지가 더 많아질 것으로 보인다.

- 이같은 측면에서 2010년 당시 IMF의 선임 경제학자였던 Olivier Blanchard는 4% 목표치가 효과적이라고 말했다.

- 또다른 고금리 옹호자인 존스홉킨스의 Laurence Ball은 4%가 바람직하다고 생각했다.

WSJ 기사

WSJ: Economic Data Paint a Picture of Two Americas
경제 데이터가 서로 다른 두 경제 계층을 설명한다

- 지난주 5월 고용 보고서에 따르면, 전체 실업률은 4%로 매우 낮은 수준을 보였다. 그런데 20세에서 24세까지의 실업률은 7.9%로 작년의 6.3% 보다 높았다.
- 특히 저소득층에서는 생필품에 대한 지출 비중이 높아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일자리 전망에 대한 자신감도 떨어지고 있다. 반면, 부유한 가계는 계속해서 소비를 이어가고 있다.
- 최근 경제 상황을 보면, 식품 업계들은 인플레로 인해 쇼핑객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보지만, 크루즈 업계는 호황을 누리고 있다. 크루즈 승객들은 대체로 평균 이상의 소득을 가지고 있다.

WSJ 기사

[미국 금융]

Bloomberg: Traders Are Bracing for Volatility on Fed-CPI Double Blow
트레이더들, 연준 금리 결정에 소비지출 지수에 대비

- 투자자들은 이번 주 수요일에 발표되는 소비자 물가지수와 연준의 금리 정책 발표에 대비하고 있다.
- 옵션 시장에서는 이 날 D&P 500d이 상승하거나 하락하거나 1.25% 움직일 가능성에 대해 베팅하고 있다.
- 시장에서는 연준이 이번 주 수요일에 금리를 그대로 유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지만, 금리 정책 발표 직후 파월 의장의 인터뷰 발언과 이날 물가 발표 지표는 향후 연준의 금리 조치에 대한 보다 분명한 신호를 보여줄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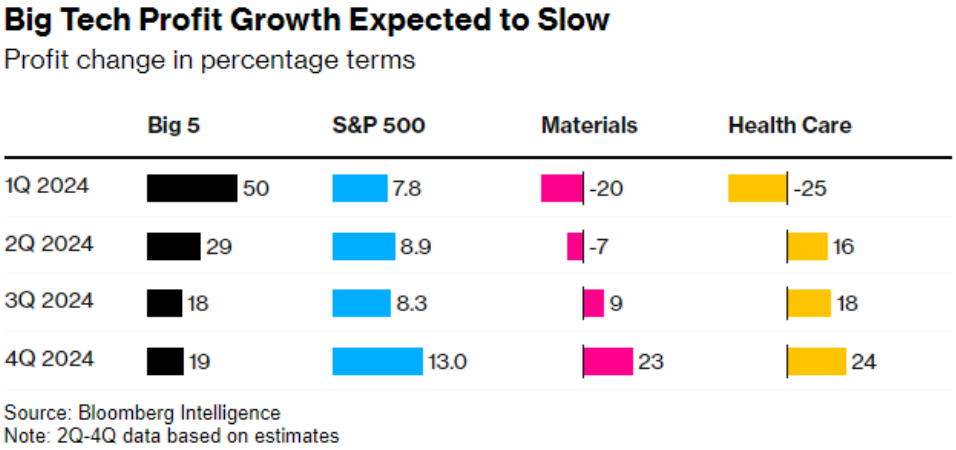
Bloomberg 기사

Bloomberg: Big Tech Is Driving the S&P Rally. The Rest Have to Step Up Soon
올해 하반기에 빅 7보다 소재, 헬스케어 성장 커

- 전문가들에 따르면 올해 초부터 최근까지 빅테크 주들의 상승세를 주도했지만 소재와 헬스케어 산업들의 수익 성장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들

업종들은 1분기에 20% 이상 위축된 후에 올해 4분기까지 대략 25%의 수익성장을 할 것이라는 것.

- 성장이 늘어날 업종은 에너지, 소재, 임의 소비재, 산업재, 금융 쪽이라고 Bank of America의 주식 및 적량분석가인 Ohsung Kwon는 말했다.



Bloomberg 기사

CNBC: Gold is getting harder to find as miners struggle to excavate more, World Gold Council says
WGC, "금 채굴이 갈수록 힘들어지고 있다"

- 금 국제 거래 협회인 Word Gold Council에 따르면 금 매장지를 발견하기 힘들어지면서 금 채굴 업계는 생산 성장세를 유지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 이 기관에 따르면 작년 금 생산량이 그 전년도에 비해 0.5% 증가에 그쳤다는 것이다.
- 전문가들은 한마디로, 금을 찾기 힘들고 재원을 조달하기 힘들고, 운영하기 힘들다고 말한다.

CNBC 기사

[물류]

WSJ: Trucking Payrolls Slide on Weaker Freight Demand
트럭 운송 일자리 줄어… 화물 수요 침체로

- 화물 수요의 침체로 트럭 운송 회사들이 일자리를 줄이고 있다.
- 노동 통계국에 따르면, 트럭 운송 업계는 5월에 5천4백 개의 일자리를 줄였으며, 이는 2023년 8월 이후 가장 큰 월간 감소폭이다. 지난 한 해 동안 트럭 운송 일자리는 총 2만9천6백개 줄었다.

- 이러한 감소는 지난달 미국 경제가 27만2천개의 일자리를 추가했음에도 불구하고 발생했다.

- 트럭 운전사들은 최근 미국 국내 화물 시장에서 장기적인 침체를 겪고 있다. 코로나로 인한 화물 수요의 호황으로 많은 운전자들이 업계에 유입되었으나, 현재 공급 과잉으로 인해 화물 경쟁이 치열해지고 가격이 하락하고 있다.

leaving the market as profits recede.

WSJ 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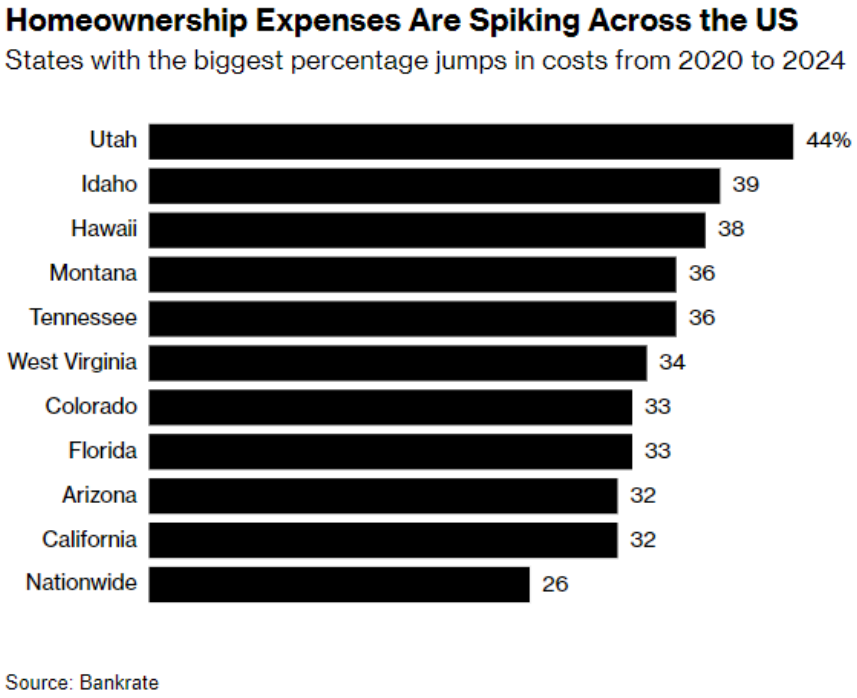
[주택]

Bloomberg: Homeownership Costs in the US Jumped 26% Since Pandemic Began
팬데믹 이후 미국 주택 소유 비용 26% 증가

- 2020년 이후 미국의 주택 소유 비용이 26% 증가했다. 이는 세금, 보험, 공공 요금 등의 비용이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모두 상승했기 때문이다.

- Bankrate에 따르면, 모기지 납부를 제외한 단독 주택의 연평균 유지 비용은 18,118달러로, 팬데믹 봉쇄가 시작된 4년 전보다 한 달에 1,510달러가 늘었다. 이 계산은 3월 평균 주택 판매 가격인 43만 6,291달러를 기준으로 한 것이다.

- Bankrate는 재산세, 주택 보험, 에너지 비용, 인터넷 및 케이블 요금, 그리고 유지보수 비용 등을 고려하여 분석했다. 애널리스트 Jeff Ostrowski는 집을 유지하는 데 드는 비용이 예상보다 훨씬 많다고 언급했다.



Bloomberg 기사

[비즈니스와 기업동향]

NYT: What Retail Apocalypse? Shopping Centers Are Making a Comeback.
쇼핑 센터 임대주, 20년 만에 소매 공간 수요 증가로 호황

- 최근 몇 년간 건설이 감소하고 성과가 저조한 매장이 정리되면서 소매 공간이 줄어들었다. 이에 따라 수요가 급증하면서 쇼핑 센터 임대주들은 20년 만에 처음으로 소매 공간 수요가 공급을 초과하는 상황을 맞이했다.
- 살아남은 매장 공간들은 더 많은 고객을 유치하고 체류 시간을 늘리기 위해 식당과 오락 시설을 유치했다. 이는 성과가 저조한 전통 소매점, 예를 들어 서점이나 의류 브랜드의 공간이 줄어들었음을 의미한다.
- 이러한 변화로 인해 “임대 업소의 중복이 줄어들고 임대주들은 훨씬 더 강력한 임대 업소 구성을 만들고 있다”라고 부동산 회사 Cushman & Wakefield의 Barrie Scardina는 말했다. 그는 “지난 10년 동안 가장 생산적인 점유율을 기록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 Cushman & Wakefield의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쇼핑 센터의 공실률은 20년 만에 최저인 5.4%를 기록했으며, 임대 협상에서의 우위는 임차인에서 임대주로 돌아섰다.

NYT 기사

WSJ: Airlines Keep Trying to Cut Out the Middleman. Here's Why It Backfires.
항공사들 '직접 판매' 위해 노력하지만 역효과 날 수 있다

- 많은 항공사들이 중간 여행사를 거치지 않고 직접 판매를 활성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유나이티드 항공, 에어 캐나다, 루프트한자, 영국항공 등은 직접 예약 방식에 수수료를 없애고, 여행 중계업체를 통한 예약에는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다.
- 그러나 항공사들이 중간 여행사들을 없애면서 얻을 수 있는 이익은 크지 않을 수 있다. 일부 연구에 따르면, 직접 판매로 인한 결제 및 고객 확보 비용이 이익을 상쇄할 수 있다. 아이디웍스 컴퍼니의 Jay Sorensen는 "더 이상 불필요한 여행사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언급했다.
- 실제로 아메리칸 항공은 직접 예약을 통해 여행사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려 했으나, 이는 단기적으로 고객 이탈을 초래했다.

WSJ 기사

CNBC: Microsoft is outsourcing its best AI, tech CEO says — and that's good news for Google
MS, AI 개발 OpenAI에 아웃소싱 … 구글에 유리할 수도

- 신원 보안 회사 Okta의 CEO인 Todd McKinnon은 CNBC와의 인터뷰에서 마이크로소프트가 인공지능 도구와 소프트웨어 개발을 모두 OpenAI에 넘기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경쟁사인 구글에게 유리할 수 있다.
- 또한, 그는 구글이 검색 분야에서 자신의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연구개발(R&D)을 아웃소싱하지 않고 가장 잘 수행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오늘날 생성형 AI 기술을 구동하는 이른바 트랜스포머가 모두 구글에서 나왔다고 덧붙였다.
- 마이크로소프트는 현재까지 OpenAI에 1백30억 달러를 투자했으며, 2023년 1월에 이러한 투자가 "AI 혁신을 가속화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 이에 대해 McKinnon는AI 분야에서 마이크로소프트의 입지가 "컨설팅 업체"로 축소될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다.

CNBC 기사

Bloomberg: Walmart Expects Profits in Its US E-Commerce Business Within Two Years
월마트, 미국 이커머스 사업에서 2년 내 수익 창출 기대

- 월마트는 향후 2년 이내에 미국 이커머스 사업에서 수익을 창출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아칸소 주 벤턴빌에 본사를 둔 이 소매업체는 광고 및 소비자 데이터 사업을 포함해 1~2년 내에 이커머스 수익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최고재무책임자인 John David Rainey는 금요일 연례 주주 주간의 일환으로 애널리스트들과의 질의응답 세션에서 이를 밝혔다.
- 그는 월마트의 창고형 클럽 체인인 샘스클럽은 이미 이커머스 부문에서 수익을 내고 있다고 말했다.
- 월마트는 이커머스 사업에서 비용을 절감하고 주문을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노력 중이며, 최근 분기에서 이커머스 사업이 기업의 성장을 견인하는 중요한 역할을 했다.

Bloomberg 기사

"미 7회 연속 기준금리 동결 유력…인하 횟수 '3→2회'로 줄 듯"

"금리선물 시장, 동결 가능성 99%…9월 첫 인하 관측"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7회 연속으로 기준금리를 동결하고 올해 인하 횟수 전망도 3회에서 2회로 축소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9일(이하 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 등에 따르면 금융시장은 연준이 11~12일 개최하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현 5.25~5.50%로 동결할 것으로 예상한다.

이날 시카고상품거래소(CME) 페드워치에 따르면 금리선물 시장은 이번에 기준금리가 동결될 가능성을 99% 이상으로 보고 있다.

... 위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신한 일일금융시장정보 원문

KOCHAM | 460 Park Ave. Suite 410 | New York, NY 10022 US

Unsubscribe | Constant Contact Data Notice